이상복명과
50년 전통 명품 수제빵
(경주빵, 찰보리빵, 계피빵)
gjbakery.com ☎1599-3301

경상투데이
gyeongsangtoday.com
(제2621호) 대표전화 054-748-0070 팩스 054-748-3663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음 10월 18일)

FUJI Xerox 한국후지제록스 경주대리점
복사기임대·각종OA기기전문
경주시 동천동 833-2번지
TEL:054-748-5335
H·P:010-4547-5335

2025 경주 APEC 외신도 성공 확신

이철우 도지사·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시장 등 특별수행원으로 페루 리마 APEC 현지행사 참석 내년도 개최지 홍보·계획 공유 글로벌 언론사·외신 관심 쏠려

지난 15일 2024년 APEC 페루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페루 문화부 내 조성된 미디어센터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 개최를 홍보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페루를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5일(현지 시각) 본격적 활동에 나섰다.

이철우 지사는 페루 문화부 내 조성된 미디어센터와 전시관에서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경주)'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활동은 성공 개최 의지 표명 인사말, 홍보 책자 배부, 언론사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했다.

페루 언론사와 외신들은 이 도지사를 비롯한 방문단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철우 지사는 "내년 APEC은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경제의 뿌리와 미래산업을 마주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역대 가장 훌륭하고 멋진 APEC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 경주를 찾아와 좋은 취재를 해달라"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지금 페루에서 진행하는 APEC 행사를 잘 보고 가서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경주방문을 당부했다.

이어서 일행은 최종고위관리회의장, 합동각료회의장, 정상회의장이 있는 리마컨벤션센터와 미디어센터 및 전시관을 둘러보는 등 '2024년 APEC 페루 정상회의' 준비 과정, 행사장 조성 상태, 전시관 구성 콘텐츠를 확인했다.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CEO-Summit에는 직접 참석해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CEO들의 활동을 참관했다.

이 도지사는 이후 경북 지역 기업들의 남미 진출을 위한 산업 정보 교환 등을 위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편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내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경주에서 개최되며 21개 회원의 정상 및 글로벌 CEO, 내외신 기자 등 2만여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다양한 회의장 조성과 국빈오·만찬 행사와 혁신적 전시관 운영,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경주가 10대 세계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문화관광 르네상스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최신기술·트렌드 총집결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팡파르

19~22일 엑스코, 252개 사 참여 자율제조·품질 경쟁력 등 테마 산업계 관련 다양한 볼거리 제공

기계·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의 최신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 대표 전문 전시회인 '2024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전시회는 252개 사 669부스의 비수도권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자동화를 넘어 자율제조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과 완성품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 모인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으로 구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

올해 25회를 맞는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DAMEX 2024)'는 157개 사 483부스 규모로 조성되며 스마트공장 구현기술, 첨단 공작기계·설비 등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기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구·금형, 제어계측·검사기기 등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디지털전환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150여 부스 규모의 '디지털전환(DX)' 특별관이 운영된다.

▲국제부품소재산업전

'제19회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Parts&MaterialsShow2024)'에는 국내외 첨단소재기업 94개 사가 참가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완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킬 부품소재 기술들을 선보인다.

▲부대행사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국내외 판로확대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출상담회, 대기업 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한다.

개막 첫날인 'KOTRA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11월 19일)'는 해외 바이어 5개국 20여개 사와 참가업체 40개 사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대기업 구매담당자 초청 구매상담회' 진행으로 대기업 구매담당자와 지역 참가업체를 1대1로 매칭해 대기업 20개 사와 참가업체 50여개 사가 제품소개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제조 산업의 미래와 성장 방향을 제시할 전문 세미나, 설명회 등 정보교류 행사들이 전시 기간 중 다양하게 진행돼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기술·경영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시장은 "소재·부품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산업이자, 최종 완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산업"이라며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기계·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의 내수 활성화와 수출시장 개척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YouTube 경상투데이

道, 도민이 공감하는 TK통합 '최우선'

경산에서 두 번째 주민 설명회 남부권 지역 각계각층 '큰 관심'

경북도는 지난 15일 경산시 시립박물관 강당에서 7일 동부권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남부권 주민 대상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북 남부권(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의 기관·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300여명이 참석해 행정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는 경북도 정성현 행정통합추진단장의 대구경북통합 추진 경과와 내용 설명,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의 행정통합의 과제 및 쟁점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던 내용으로는 △행정통합을 하면 과연 인구소멸을 막고 글로벌 기업들을 더 잘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간 통합 추진 과정상 지역주민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해왔는지 △통합하면 대구시로 행정사무나 재정이 집중되지는 않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 있었다.

이날 경북도는 대구경북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남부권을 한반도 新 발전축의 경제·산업 충주도시로 산업·교육·문화가 어우러지는 발전 방향과 통합 비전도 제시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확보로 주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주인공인 도민의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해 나갈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道개발공사 건전 재정으로 도민 복지 높여야

도의회 건설소방위, 탄탄한 행감
힌남노 피해민 현실적 지원 당부
임대주택의 공급평형 확대 요청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북개발공사, 김천소방서, 칠곡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항상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꼭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의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보상 민원과 관련해 집행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해 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건축 평당가를 측정할 것을 주문하고 임대주택이 주로 작은 평형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 가구에서 육아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더 늘리도록 요구했다.

남영숙 위원은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관련해 타 시·도에 비해 복지기금 사용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복지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질의 후 관련 내용을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남진복 위원은 시·군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개발공사에서 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보상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울릉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은 투자 금액 대비 사업성이 저조한 것을 지적, 이자상승률 대비 사업성과를 질의했고 사업 추진 시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해 이자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은 경주 서라벌 임대사업의 추진현황을 질의 후 임대사업 기간 만료 후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의 기간 연장 등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창화 위원은 지난해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의 예산액 차이를 지적하며 잘못된 표기방식을 개선해 결산상의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허복 위원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 사용을 검토할 것을 질의하며 과학자마을 진행상황에 대해 가구당 건축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을 지적하며 세대수를 늘려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신도시 공동주택개발 사업의 미분양 토지에 대한 특약사항이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경북개발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금을 명확히 회수해 도민의 복지 향상과 경북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유학생 유치 인원 점진적 확대에 따른 학폭 등 교내 사건사고 대응 매뉴얼 必

정한석 도의원, 도교육청 행감서
유학생 안전관리 체계 확보 주문

정한석(사진) 경북도의회 의원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사업에 대해 해외 유학생 안전관리 매뉴얼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전국 최초의 선진사례가 경북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고무적"이라며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유학생에 대한 안전망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및 생활 사고에 대해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 관계 사항을 알려달라"라고 질문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해외 유학생에 대해 나름의 철저한 학생 선발 및 기숙사 생활환경 점검, 단위 학교에서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학교폭력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유학생 유치 인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유학생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사건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지금부터 준비기간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과 보완을 통해 전국 최초의 우수한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사업'을 실시, 올해 4개국 48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7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사회복무요원 기강 강화·병역의무자 제재 형평성 갖춰"

임종득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음주 등 복무태만 행위 근절 일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음주 등의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만 음주, 도박 등의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이를 통해 5일간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역병의 경우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복무기간 중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돼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다.

임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유명 가수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병무청의 미징계 조치를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장은 현행법에서 관련 징계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재 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병역 이행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올바르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병무청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국학진흥원 행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국학진흥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규탁 의원은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은 인문정신연수원의 수익성 향상 방안을 요구하며 특히 손익계산서에서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활동수당과 실비가 여비교통비로 잘못 분류된 점, 과도한 결손금, 부적절한 감가상각비 처리 등 전반적인 재무제표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용현 의원은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우수 인력 활용 측면에서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이 사업을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만 운영하지 말고 늘봄학교와 같은 다른 교육 현장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경민 의원은 국학진흥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에 영어 해설을 추가하고 온라인 PR 체계를 마련,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이 경북의 문화와 역사 스토리를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연규식 의원은 국학진흥원 건물의 노후화 문제와 더불어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2024년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철남 의원은 경북 선비아카데미 사업의 예산 배분을 과정별로 적절히 할 것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타 시·도의 유교 관련 프로그램을 참조해 경북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의원은 기록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전시회와 공모전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영상자료의 데이터화 및 오프라인 자료 보급을 제안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국학진흥원의 업무가 단순한 기록물 보관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국가적 사명임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사명감과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학진흥원의 회계처리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우리 농가 위해 똘똘

군위군의회, 사과농장 일손돕기
애로 해소 등 지원 방안 모색 다짐

군위군의회는 지난 14일 가을철 사과 수확기를 맞이해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를 방문해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직원 20명은 군위군 소보면에 위치한 사과 농가를 방문해 사과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최 의장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런 심각한 시기에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스럽다. 군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청년 농업인들, 도시민에 '농업 가치' 알렸다

경북농기원, 4-H경진대회 성료
팜크닉·농산물 홍보부스 등 다채
기부·저출생 극복 캠페인 훈훈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청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고 나누기 위해 '제54회 경북도 4-H경진대회'를 지난 15일과 16일 경북도농업인회관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개최했다.

'도심 속 팜크닉, 농업의 가치를 나누다'라는 테마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첫날 농업인회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우수회원 표창과 저출생 극복다짐 퍼포먼스 등이 마련됐다.

특히 결혼과 출산 예정인 31쌍의 부부 회원들에게 격려품으로 화목하게 평생 함께하는 부부를 상징하는 원앙 세트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과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인문 교양서적인 '다산의 마지막 편지'를 전달했다.

이튿날에는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도심에서 경험하는 농촌 소풍의 의미를 담은 '팜크닉'을 열어 도시민과 청년 농업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농업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년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홍보하고 우리쌀 가래떡 시식, 반려 곤충 체험 등 농업·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술쇼, 버스킹, OX 퀴즈,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시·군 회원들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4-H 경진대회가 열려 우수시·군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대표 과제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거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 쓰담걷기(쓰레기 담으며 걷기) 캠페인, 취약계층 생필품 보급 사례 등이 많았다.

이 밖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풍선과 비눗방울 놀이 세트를 나눠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행사가 끝난 뒤 전 회원들이 수성못 일대를 돌며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 지덕노체 4-H 정신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조영숙 원장은 "이번 대회는 청년농업인들이 자신의 열정과 자부심을 담은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직접 선보이며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 도심에서 농업·농촌의 매력을 친근하고 새롭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문화관광공사, 대만에 경북 매력 널리

여행사 팸투어로 관광상품 개발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대만 여행사 10여곳을 초청해 경북 북부권(문경, 영주)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경북도와 공사뿐만 아니라 문경시, 영주시,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13일과 14일 대만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문경 '눈물의 여왕' 촬영지를 비롯해 문경새재도립공원, 봉명산 출렁다리 등을 방문했다. 또 15일과 16일에는 영주에서 막걸리 빚기와 선비세상, 선비촌 체험을 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석사와 소수서원, 용천루 출렁다리를 방문했다.

이번 팸투어는 대만 관광객이 선호하는 체험형 중심의 관광상품으로 구성해 참가자들이 관광명소를 직접 체험하며 경북 북부권(문경, 영주) 관광지의 매력을 느낄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이번 팸투어로 경북 내 관광상품을 다양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일 사장은 "대만 여행사 관계자들이 경북 북부지역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 대만 관광객의 취향을 저격하는 새로운 여행상품을 개발해 경북을 알리고 경북 북부권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이철우 지사, 지역 기업의 남미시장 진출길 확대 '앞장'

APEC 개최지 페루 리마 방문해
포스코·삼성물산·현대건설 등과
남미 무역·산업 협력 방안 논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 정부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문해 15일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이철우 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포스코인터내셔널, 고려아연, 삼성물산,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OCI 상사의 페루 주재 기업인이 참여했다.

이철우 지사는 기업인들과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경북과 페루 등 남미지역의 무역·산업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페루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자원개발, 방위 협력사업, 사회 인프라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기업들의 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페루 주재 한국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와달라"며 "경북도 내 반도체, 방산, 자원기업 등의 협력 강화와 농수산 가공식품의 현지 수출 확대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력 높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모의훈련

경북도는 14일, 15일 이틀간 올해 겨울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기 위해 도와 22개 시·군 등 도내 전 행정·공공기관과 지정 사업장 등이 참여했다.

훈련 상황은 지난 14일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150㎍/㎥(마이크로그램/미터제곱)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도 75㎍/㎥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상황으로 진행했다.

'주의' 단계에서는 사업장·공사장 배출 저감 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용차량 운행 제한, 도로 청소 확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공사장과 사업장 각 1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작업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을 실제 시행했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홍보 위주로 하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모의훈련 방식으로 했다.

도는 훈련을 통해 참여기관과 사업장까지의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초미세먼지 재난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

자원봉사자 18명 기관 표창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내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북도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우수 상담자원봉사자 도지사 표창, 상담 활동 사례 소감 발표 및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도내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는 학업, 친구 관계, 진로 결정, 가족과의 갈등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있으며 경력자, 상담 관련 교육과 경험자 위주로 선발해 21개 시·군에 4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시상식에서 지난 1년간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한 자원봉사자 18명에게 기관 표창을 전달했다. 이어서 팝아트 작가이자 아트팩토리 대표인 김민경 강사의 '소중한 나! 팝아트 자화상'을 주제로 진행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안성렬 저출생과전쟁본부장은 "중요한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도움을 주는 상담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우리 도내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멘토로서 큰 힘이 돼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상담자원봉사 성과로는 상담자원봉사자 양성과 역량 강화 교육 2186명, 상담 등 활동 1016명을 통해 수혜 청소년 9729명이 다양한 예방상담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지역의 든든한 정서적 지지망으로서 긍정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선관위 직원봉사단체 '구슬땀'

농가 주변 시설물 정비 등 도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봉사단체인 '햇살나누미'는 15일 영주시 부석면 소재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햇살나누미'는 지난 2011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해마다 정기적으로 지역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15명의 직원들은 줄 자르기, 비닐 걷기, 집게 뽑기 등 농가 주변 시설물 정비에 힘쓰며 서늘한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렸다.

관계자는 "가을철 농번기에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인 힘을 보탤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역사를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따뜻한 경주교육

지 표: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여는 미래
정책방향: 삶이 있는 교육과정, 힘이 되는 미래교육,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 혁신하는 교육 지원

정책과제 1. 삶이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수업 중심의 학교를 조성하여
공교육 정상화 및 학습자 주도성을 키웁니다.

정책과제 2. 힘이 되는 미래교육을 통해
따뜻한 인성을 기르고
미래 주인공으로서 꿈을 키우며
가치있는 미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정책과제 3.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를 통해
배려와 존중이 있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여
모두의 행복을 지원합니다.

정책과제 4. 혁신하는 교육 지원으로
교육중심 행정,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산시켜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합니다.

모두가 존중 받는 따뜻한 경주 교육을 위해 늘 함께하는 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경북, 기습적 폭설·한파 대비 준비 '이상 無'

제설 자재·장비 일제 점검 완료
기상 상황별 5단계 대응책 마련
전기·통신 두절 예상, 관리 강화
한파 쉼터 5113개소 지정 등 총력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겨울철 자연 재난(대설·한파) 대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점검 회의에는 도 재난관리과장, 경북경찰청, 대한적십자사, 한국전력공사, KT 등 유관기관과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겨울 대설·한파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평상시에는 24시간 3교대 상황 근무로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대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제적 상황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대설(한파) 관련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5단계 상황관리 체계(준비, 초기대응, 비상 1~3단계)를 발령하고 특히 비상단계(1~3단계)에 해당하는 특보가 발효될 때는 협업부서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계별 근무 기준에 맞게 상황 근무를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겨울철을 대비해 제설제 1만866t, 제설 장비 3965기 등을 확보했으며 제설 취약 구간 제설 대책 및 산악마을 고립 예상 지역 안전관리 대책 등 시·군의 겨울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실태를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일제 점검·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많은 강설 시 고립이 예상되는 산악마을 가구에 대한 전기·통신 두절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전기·통신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주 및 통신주 파손으로 전기 차단 및 통신 두절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에서는 시·군 부단체장 및 경북도에 즉시 통보하고 즉각적인 제설작업과 통신 및 전력을 복구한다.

이와 더불어 고립 예상 지역 인근 벌목업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피해 상황 발생 시 설해목 제거와 제설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대설로 인한 정전·통신두절 피해가 발생한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 산악마을 고립예상 지역에는 위성전화기를 13대 배치하고 비상전원장치를 설치해 통신두절 상황에서도 위성전화로 주민 안전을 확인함과 더불어 정전 시 비상전원장치를 가동해 최소 24시간 이상 전기를 공급하고 추위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한다.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파 쉼터 511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한랭질환 응급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등 도민체감형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겨울철 대책 기간에는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보호를 위해 방문 및 안부 전화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박성수 도 안전행정실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 폭설과 기록적인 한파 등 예측 불가한 자연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체 없는 복구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인명피해 제로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이번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에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음주로 면허취소된 도민 올해만 4173명

2회 이상 재범자만 623명 육박
경북경찰, 재범자 면허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치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이며 이 중 2회 이상 음주 재범자만 6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것이다.

올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청송청소년상담센터, 폭력예방 캠페인 운영

진성중 또래상담자들과 활동 주도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3일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성중학교 또래상담자들과 함께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진성중학교의 또래상담자들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자료를 나눠주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핫팩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 성장하는 공감, 의사소통, 리더십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진보초등학교 58명, 진보중학교 6명, 진성중학교 6명, 진보고등학교 6명 등 총 76명의 학생들이 또래상담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또래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현대제철 노조 "포항 2공장 위장 폐쇄 중단하라"… 총파업 예고

포항 금속노조·민노총과 기자회견
의도적 방치 행태 상경 투쟁 '한뜻'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와 금속노조 포항지부, 민주노총 포항지부는 지난 15일 현대제철 포항 1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지난 수년간 의도적으로 방치하더니 기업 논리를 앞세워 위장 폐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7~8년 전만 해도 세계 일류제품 6개 중 5개를 생산하는 핵심 사업체였다. 하지만 기술 개발과 투자 대신 3년 전부터 인천과 당진공장에서 포항공장 제품의 대체 생산을 확대해 포항공장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제철이 손쉽게 수익을 키우다가 소송과 자회사 설립으로 비용이 증가하자 선택한 것은 노후화된 포항공장 방치였다"며 "포항 2공장 폐쇄는 단순한 경기 침체와 가격 경쟁력 약화 때문이 아니라 비용 축소와 수익 극대화란 기업 논리만 앞세운 위장 폐쇄다. 포항공장 노동자 2000명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지회장은 "회사 측의 폐쇄 통보에 맞서 포항 1공장 노동자 및 자회사인 현대IMC 노동자와 함께 상경 투쟁을 하고 총파업 투쟁도 벌이겠다"고 말했다.

뉴스1

경주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완료

80곳 중 3곳 적발, 행정 처분 예정

경주시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실시해 3곳의 사업장을 환경 법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외동 및 안강 두류공업지역 80곳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점검에는 경주시환경보전협의회와 안강 민간환경감시단 등 민간 환경 전문가 15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환경 사업장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기, 폐수, 악취, 폐기물 등 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3곳 사업장이 환경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채수한 방류수 3건은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지역 중소 사업장의 환경업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주시환경보전협의회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시설 개선과 취약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영양군, 고독사 위험·사회적 고립 예방 홍보 캠페인 '성공적'

위험 징후 가구 발굴법 적극 공유
복지위기알림앱 설치·사용 독려

영양군은 지난 12일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주제로 한 홍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들에게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가구의 문제를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슬로건 '함께 가요, 살펴봐요'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고립 위험 징후와 도움을 필요한 이웃을 찾아내는 방법을 적극 공유했다.

특히 캠페인 현장에서는 복지위기알림 앱의 사용 방법을 소개하며 군민들이 즉석에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활동이 펼쳐졌다. 이 앱은 본인이나 이웃의 위기상황을 발견했을 때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로 군민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영양군은 행복기동대를 중심으로 한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1인 가구 안부 확인 서비스,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고독사 사망자 유품 정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사회의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양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오도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언제든 군청 주민복지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복지 부서에 연락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oms7227@nate.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令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도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로까지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인 정기 신혈 진액의 소모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 치료는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뇨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혁신·창의적 기술로 미래 지방시대 선도한다

경주시, 2024년 해오름동맹 벤처·창업기업 혁신포럼 '성료'
울산·포항 기업인 200여명 모여 고용 창출·산업 혁신 등 논의

경주시는 울산·포항과 함께 지난 15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해오름동맹 벤처·창업기업 혁신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한 벤처·창업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벤처·창업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 주제 발표,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에서 김영상 메가존㈜ 부사장은 성공적인 창업의 필수요소가 된 디지털 기술이 지방의 벤처 창업가에게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에너지 시대, 울산 제조혁신과 벤처창업기업의 역할(이경우 울산연구원 실장) △지산학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역할과 성공 전략(백기동 ㈜프로맥스 대표이사)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벤처·창업기업의 역할(안석현 포항연합기술지주 이사)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신 울산대 산학협력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창업전문가, 창업기업, 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벤처·창업기업의 역할과 디지털·AI시대 지자체·대학과 산업 협력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시대라는 대전환기에 창업기업이 어떻게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산업 혁신, 기술 개발을 비롯해 청년 창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한편 해오름동맹 벤처·창업기업 혁신포럼은 경주·포항·울산 3개 도시 상생발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인 해오름 동맹 사업 중 유일한 벤처·창업 기업을 위한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송호준 부시장은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해오름동맹 도시의 경제를 이끌 벤처·창업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포항, 울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따뜻한 겨울 추억 '윈터라이트 포차' 개최

22~24일 경주문화관1918서 진행
포차 테마 음식·주류 부스 운영

경주시가 경주 사계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겨울밤의 따뜻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문화관1918(구 경주역)에서 겨울축제 '2024 윈터라이트 포차 in 경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포장마차'를 테마로 한 11개 음식 부스와 지역 대표 주류업체들이 운영하는 포차 광장과 포차 라운지가 마련된다. 또 경주법주 등 경주의 특산 주류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지역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경주문화관 1918 전시관 내부에서는 '차원의 문', '빛 속으로', '컬러 쉐도우', '스포트라이트' 등을 주제로 다양한 라이트쇼가 열려 축제의 화려함을 더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생맥주 3500원, 소주 3000원, 법주막걸리 3000원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류를 제공하며 떡갈비, 육전, 옛날통닭, 양고기구이, 붕어빵 등 40여가지 안주류도 1000원부터 1만 2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맛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포차 광장에서는 'Shorts Dance Challenge', '음악퀴즈 Sing-Along', '포차맨&포차우먼 프로그램', 신청곡 재생·관객 인터뷰로 구성된 '포차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2024 윈터라이트포차 in 경주'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저녁 5시~10시 운영된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 사계축제의 첫 겨울 축제인 이번 행사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울산·포항 생활체육인, 스포츠로 우정과 화합 다져

해오름 생활체육 대축전 열어
선의의 경쟁… 경주시 '화합상'

스포츠 교류로 우정을 다지고 경주·울산·포항시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2024 해오름 생활체육 대축전'이 지난 16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임활 경주시부의장, 김종섭 울산시의장 직무대리, 이재진 포항시 부의장, 여준기 경주시 체육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라슈트 공 튀기기, 전략 줄다리기 등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지역별로 팀을 이뤄 국학기공, 여자배구, 여자풋살, 족구 등의 경기가 펼쳐졌다.

참가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했다. 특히 여자배구 및 여자풋살은 열정과 기량을 뽐내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대회 결과 명랑운동회 및 족구 합산 점수 1위 시에 주는 7330상은 울산시, 경기 참여율과 열성적인 응원을 보여준 경주시는 화합상을, 동맹 도시 간 교류를 위해 노력한 포항시는 우정상을 각각 차지했다.

송호준 부시장은 "이번 해오름 생활체육 대축전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 해오름동맹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시, 물정화 특허기술로 국내외 '이목 집중'

환경·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
17개국 경주 공공하수처리장 견학

물 산업의 우수 환경기술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환경기술 개발자, 해외 바이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 관련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 부스와 상담 창구 등으로 운영됐다.

첫날 행사에서는 환경기술 보급 유공자에 대한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됐고 우수 환경기술 모형 전시와 홍보 상담이 이뤄져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경주시는 물정화 특허기술과 환경부 환경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지자체로서 '경주시 물 정화 기술 홍보관'을 통해 GJ-R, GK-SBR 기술을 소개, 구매 상담회를 진행하며 국내외 상하수도 관계자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튿날에는 몽골, 콜롬비아, 가나 등 17개국에서 온 환경협력국 관계자 44명이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장과 수질연구 장치를 견학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대행도 이날 견학을 함께하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경주시 수질연구팀의 기술을 확인하고 해외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서면 지보협, 복지 지원책 강화

출산가정 축하·이웃 돕기 논의

경주시 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회를 열고 출산가정에 대한 축하 선물 전달 사업 재개와 연말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모금에 대해 논의했다.

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년 전까지 서면 출산가정에 선물을 전달하는 사업을 운영했으나 다른 사업과의 중첩으로 일시 중단했다.

이날 임시회를 통해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며 첫 번째 가정으로 조모씨 가정에 상품권과 전기장판 2개, 꽃다발 등 40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이어 위원들은 연말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모금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박춘발 민간위원장은 "출산가정에 축하선물을 전달하며 서면에 희망을 나누게 돼 매우 기쁘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재능 기부와 자발적 봉사를 통해 서면 복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우리동네 모범 공무원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 위해 일할 것"

윤희목 황오동 생활지원팀장
APEC 유치 서명운동 1위 주역

경상투데이는 일 잘하는 공무원을 격려하고 공직사회와 언론사가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칭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장(면장)이 칭찬하는 모범 공무원을 매주 한 차례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한다. 〈편집자주〉

동장(면장)이 칭찬하는 두 번째 미소천사는 경주시 황오동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윤희목(세무 6급) 팀장이다.

윤희목 주무관을 추천한 최미리 동장은 "윤 주무관이 생활지원팀장으로서 직원들과 소통·화합을 이끌어내고 지역주민과 화합, 주민 모두가 잘사는 황오동을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2025 APEC경주 유치를 위해 윤 주무관과 팀원들은 경로당 순회방문, 경주 성동시장, 병원 등 서명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APEC 유치 기원 가로기를 자체 제작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 지지 운동을 통해 황오동이 'APEC경주 유치 참여 서명운동'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민 봉사 및 민원 편의를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친절한 민원 상담과 신속한 업무지휘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황오동 주민들에게 인정받음은 물론 매사에 검소·모범적인 생활 태도로 타 주무관들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윤희목 주무관은 "생활지원팀장으로써 상·하간 갈등을 치유하고 직원들과 수시로 소통해 가족 같은 직장분위기로 주민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에 공무원을 시작했다"며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행정 일선에서 경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대구시 명장회, 지역 청년·청소년 꿈 키운다

숙련기술 전수 직업체험 박람회
29명 명장 작품 50점 '한자리에'
한복생산·플라워테라피 등 체험
취·창업상담 동기부여 '큰 호응'

대구시 명장회 주관, 대구시가 후원하는 '2024년 숙련기술 전수 직업체험 박람회'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수성구 함장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2024년 대구시 명장으로 선정된 이영광(자동차정비), 최지은(한복생산), 우상욱(도자공예), 배태규(보석공예)명장을 포함 총 29명의 명장들의 작품 50점을 관람할 수 있는 명장 작품전시회와 한복생산, 플라워테라피, 제과제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역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산업·공예·서비스 분야의 취업·창업상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돼 진행됐다.

대구시 명장회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경력단절 및 취업준비 청년, 청소년들에게 지역 최고 숙련기술이 담긴 작품 관람, 숙련기술 직업체험, 직업진로 취업상담, 창업상담 활동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인 진로 탐색 및 동기부여, 숙련기술 인식 제고에 도움을 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대구시 명장'은 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 발전 및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대구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난 2013년부터 선정된 대구시 명장들로 구성된 대구시 명장회는 해마다 지역 사회 공헌 봉사활동 및 미래 명장 육성을 위한 숙련기술 전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섭 경제국장은 "지역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신 훌륭한 명장님들이 보유 숙련기술을 지역 사회에 널리 보급하고 차세대 기술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대구시도 기술 산업의 발전과 숙련기술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농가 속썩이는 '고추 뿌리썩음병' 꽉
군위군, 미생물제제 시범적용 '성공'

대구시 군위군이 고추 농가가 근부병 예방을 위한 미생물제제 시범 적용을 통해 고추 뿌리썩음병 억제에 성공했다.

이번 시범 연구는 경북대학교 신재호 교수 연구팀이 주도했으며 농업기술진흥원 주관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사용된 특허를 활용해 바실러스 튜린지엔시스(Bacillus thuringiensis KNU-07) 미생물제제를 인삼 외에 고추의 뿌리썩음병 예방에도 적용했다.

군위군에 위치한 시범 농가에서는 고추 묘종을 이식하기 전 바실러스 튜린지엔시스(Bacillus thuringiensis KNU-07)을 물에 희석해 묘목의 뿌리를 침지 처리했으며 이후 재배 과정에서 이식된 고추 주변 토양에 관주 방식으로 추가 처리했다. 이러한 미생물제제 사용으로 인해 고추 뿌리 주변에 유익한 미생물 환경이 형성됐고 병원균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시범 연구 결과 고추 뿌리썩음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작물의 생육 상태와 수확량도 크게 개선됐다.

신재호 교수는 "고추 뿌리썩음병 예방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 증대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번 바실러스 튜린지엔시스(Bacillus thuringiensis KNU-07) 유용미생물의 성공적인 시범 연구를 통해 군위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열 군수는 "근래 이상기상에 대응해 군위군 고추 농가의 지속 가능한 재배와 수확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양한 작목에 미생물제 확산 활용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우리동네 어벤져스 '대구 자율방범대' 치안유지 봉사 박수

홍준표 시장, 임원진 찾아 격려
근무복 구입 지원 등 소속감 고취
"적극적 방범 순찰 활동 기대" 당부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자율방범연합회 임원진(김용환 회장 외 3명)을 면담하고 격려했다.

대구시 자율방범대는 총 173개 대 3800여명의 대원이 활동 중으로 야간 방범 순찰 활동 및 청소년 선도, 자연재난 피해지역 복구작업 지원 등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 사회 안전을 지키는 지역 봉사 단체이다.

그동안 자율방범대 근무복이 구별로 달라 소속감이 떨어지고 순찰 효과가 낮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2025년도에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지원비로 3억8000만원을 지원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방범순찰 활동 강화를 통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김용환 회장은 "대구시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줘서 감사하다.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으로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활발한 치안유지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앞으로도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범 순찰 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과 화합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유명식품박람회서 대구우수식품 널리 알려

서울국제식품전·음식산업박람회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집중 홍보

대구시는 대구우수식품의 판로 확대와 브랜딩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서울국제식품산업전과 이달 29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열리는 대구음식산업박람회에서 각각 대구우수식품 홍보관을 운영해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선보이게 된다.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은 국내외 식품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형 전시회로 대구에서는 성경순만두, 세연식품,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 ㈜홍두당, 위버멘쉬코리아㈜, 일월한과 총 5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대구에서 생산된 품질 높은 식품들을 소개하며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국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어 대구음식산업박람회에는 농업회사법인 ㈜영풍, 세연식품,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 ㈜맛잽이식품, ㈜참바른식품, ㈜서라벌푸드, 위버멘쉬코리아㈜, 일월한과, 총 8개 기업 참여가 예정돼 있다. 대구는 박람회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대구 우수식품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노권율 위생정책과장은 "대구우수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친숙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식품 기업과 소비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대구 식품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시, 보훈정신 실천 '앞장' …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구시는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17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기념식은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이만규 시의회 의장, 강은희 시 교육감, 강윤진 대구지방보훈청장,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순국선열 추념문 낭독, 제4회 대구시 호국보훈대상 시상, 기념사, 만세삼창, 특별공연 순으로 광복회 대구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추념문은 지난 1945년 광복회 첫 순국선열의 날 행사에 정인보 선생께서 직접 지으신 한문본을 주해·발췌해 노수문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이 낭독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보훈문화 발전에 기여한 분들과 단체에게 대구시 호국보훈대상을 수여함으로써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대구시 호국보훈대상 시상은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하며 독립부문에는 광복회 회원으로서 독립운동사 아카데미 등 각종 보훈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신문 등 언론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살아온 길' 등 기고를 통해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 온 이동후 님을 수상자로 포상했다.

이동후씨는 지난 1919년 3월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독립을 호소하기 위한 독립청원서에 서명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으신 이만규 지사의 후손으로 전통예절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발전과 전통문화수호에도 기여해 왔다.

단체부문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6·25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전후세대들에게 알리는 호국영령추모제와 호국영령들의 명예 선양 및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는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홀로 계신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중식 봉사나 신천둔치 정화 작업 등 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구시지부(지부장 박영한)를 수상자로 포상했다.

시상 이후 기념식은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심훈 시인의 '그날이 오면' 낭송, '그리운 금강산', '나를 태워라' 등의 플롯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기념식에 앞서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이만규 시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참배 행사도 가졌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대구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과 후손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보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봉화 농업혁신 선도 '임대형 스마트팜' 첫 삽

총사업비 235억, 내년 9월 준공
온실 2개 동, 연구소 등 부대시설
환경보호·에너지절약 시스템 등
2세대 스마트팜 모범 모델 계획

봉화군은 지난 14일 봉성면 창평리 일원에서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현국 군수, 권영준 군의회 의장, 박창욱 도의원, 정주호 경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장,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교육생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내용 보고, 축사, 시삽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총사업비 23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오는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사업내용은 전체 5.3ha 부지에 스마트팜 온실 3.5ha 조성과 스마트팜 연구소 등 부대시설 1.8ha가 조성될 예정이며 온실은 전체 2동으로 A동은 2ha로 딸기가 재배되며 B동은 1.5ha로 토마토가 재배될 계획이다.

A동은 딸기 재배동으로 전체 재배면적은 1만8372㎡로 5557평이 조성되며 재배 구역은 전체 4개 동으로 한 동당 3명의 농업인이 경작하게 된다. B동은 토마토 재배동으로 재배 면적은 1만3618㎡로 4119평이 조성되며 재배 구역은 전체 3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양액 재활용시설 완비, 고성능 공기열 냉난방시스템 도입 등으로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우수 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국 최고시설로 동별 환경제어 컴퓨터는 통합 관리용 서버 컴퓨터로 자료가 이송돼 온실 내 외부 최적의 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등 제2세대 스마트팜의 모범 모델로 운영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9월에 준공될 봉화 임대형스마트팜은 21명의 농업인들이 3년간 스마트팜을 경영하게 되며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자체 주관 임대형 스마트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농업인들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 특히 청년들이 농촌에서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야 한다"면서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가 그 해답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경북도는 농업인의 소득이 2배, 3배가 되도록 더욱 힘을 보태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국 군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구 감소 추세는 막을 수가 없다. 이런 각종 여건상을 볼 때 봉화군도 머지않아 일손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농업 대혁신뿐이다. 스마트팜은 작은 면적에서 고수익을 올릴 뿐 아니라 인력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농업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돼 우리 봉화군의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봉화군의 제2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의성,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한다

道 경관디자인 공모 도비 1억 확보
노후 방호 외벽 개선·LED등 설치

의성군이 '2025년 경북도 경관디자인사업' 분야 공모에 선정돼 도비 1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총사업비 4억2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경관디자인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도시 지역의 다양한 공공 공간, 도시환경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로컬디자인 적용으로 지역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봉양면 쌍계천 주변 노후된 홍수 방호 외벽 경관개선과 LED조명 장치를 활용한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야간경관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도시브랜드 창출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예천자봉센터, 명랑운동회로 '소통·화합'

가족봉사단 세대 간 벽 허물어

예천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6일 예천국민체육센터에서 제1회 가족봉사단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가족봉사단 명랑운동회는 예천군 부부봉사단, 예천군 가족봉사단, 호명 가족봉사단 가족 100명이 모여 단체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제1회 가족봉사단 명랑운동회는 청팀·홍팀 2개의 팀으로 나눠 △줄다리기 △파도치기 △협동자전거 △이어달리기 등 자원봉사단체들의 협력을 강조한 게임과 레크레이션을 실시하고 자연스럽게 팀워크를 발휘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명랑운동회는 단체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협력하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개최됐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들이 참여해 세대 간의 소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존중하는 시간이 됐다.

최창환 부부봉사단 회장은 "명랑운동회를 통해 가족들의 건강도 지키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결 된 가족봉사단·호명가족봉사단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조애자 이사장은 "이번 명랑운동회를 통해 자원봉사단원들이 서로의 가치를 나누고 가족 간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영양군, 김경일 교수 초청 21일 '적정한 삶' 무료 강연

영양군은 오는 21일 오후 1시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2024년 마지막 '영양 별빛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양 별빛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 수준 높은 강연으로 군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양군 대표 평생학습 사업이다.

이번 강연에는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초청돼 '적정한 삶'이라는 주제로 군민들에게 삶의 방향성과 지혜를 나눌 예정이다. 김 교수는 'tvN 어쩌다 어른', 'KBS 아침마당' 등 방송에 출연, '국민 마음 멘토'로 사랑받고 있다. 저서로는 '마음의 지혜'와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등이 있다.

이번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영양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치행정과(054-680-6312)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신선도 최고 '청송 꼭지사과' 드셔보이소~

영양군, 김경일 교수 초청
21일 '적정한 삶' 무료 강연

청송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 5개 지점(양재, 창동, 고양, 성남, 수원)에서 '대한민국 사과산업 대전환, 신선함이 가득한 꼭지사과 홍보 및 판매행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양재점 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된 개막식을 시작으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꼭지가 제거된 사과와 달리 꼭지를 그대로 둔 '꼭지사과'의 신선함과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됐다. 청송군과 (사)한국사과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꼭지사과'가 신선도와 품질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이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막식에는 윤경희 군수, 농협 관계자 및 유통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열려 '꼭지사과'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유통 시장 내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사과 꼭지를 치지 않음으로써 농민들은 인건비 절감을, 소비자는 더욱 신선한 사과를 맛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로 청송사과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안동자봉센터 '드림봉사단' 따뜻한 마무리

15개 단체, 오지마을 곳곳 누비며
이미용·물리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

안동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 활력센터에서 '출동! 드림봉사단'의 마지막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출동! 드림봉사단'은 안동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함께하는 전문봉사단으로 봉사활동의 사각지대인 오지마을을 찾아 맞춤형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활동에는 안동시자연보호협의회, 가톨릭상지대학교 치위생과,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동경찰서, 힐링봉사단 등 15개의 단체가 참여해 풍성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단은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 △목욕 서비스 △환경정화 △방충망 수리 △치아검진 △심리 상담 △물리치료 △안전 예방 상담 △행복사진 촬영 △소독 △이동세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가톨릭상지대학교 치위생과의 치아검진 재능기부 활동은 어르신들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 방법을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고운자 센터장은 "올해 마지막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풍요롭게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손길이 오지마을 깊숙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미 민원새마을과장은 "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김천시, 저출생 위기 극복 지원책 '더 탄탄히'

내년부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건강 출산·양육부담 해소 한몫

김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 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 부재와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실 부족으로 김천시 산모들이 타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가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산모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아기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생아가 김천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비이용 가정이다.

신청방법은 출산일 이후 60일 이내 김천시보건소(1층, 모자보건실)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산후회복에 지출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접수되며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운동 수강료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첫만남 이용권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비용은 제외된다.

이우원 소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김천시는 모든 가정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금복장학재단, 고령 발전·인재 양성 일조

"지속적 보탬 위해 노력할 것"
교육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재)금복장학재단에서 지난 15일 고령군청을 방문해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교육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김일환 재단 대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재)금복장학재단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성현덕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내어 주신 김일환 (재)금복장학재단 대표님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함과 더불어 "기탁금은 학생들의 쾌적한 학업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뜻 큰 금액을 기탁한 (재)금복장학재단에 고마움을 표하고 "고령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라며 "전달해 주신 기탁금은 고령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육성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구미시가족센터, 슈퍼맨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김밥' 눈길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교실 개최
요리대회로 자녀와 소통의 시간

구미시가족센터가 지난 16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시에 거주하는 아빠와 가족들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육아맨의 슈퍼 요리왕(이하 아빠 요리대회)을 개최했다.

아빠 요리대회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의 작품 '김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열정적인 요리실력을 뽐냈다. 또한 대회 도중 세상에 하나뿐인 김밥을 만들기 위한 추가재료 획득 게임도 펼쳐져 재미를 더했다.

시상식은 아빠의 정성상, 아이디어 뱅크상, 금손 아빠상, 슈퍼맨상으로 구분해서 참여한 아버지 모두가 상을 받아 자녀들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도근희 센터장은 "오늘 행사는 순위를 매기는 대회가 아닌 모두가 1등 아빠가 된 대회이다. 이 순간 만들어진 추억은 모두에게 살면서 힘이 되는 특별한 기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미시가족센터는 아버지들의 역할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육아슈퍼맨이라는 명칭으로 아빠들이 쓰는 육아일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아빠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칠곡, 산불방지 발대식·안전교육 실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감시원
결의문 낭독·안전관리 점검

칠곡군은 지난 13일 군청 강당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산불방지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하고 산불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발대식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산불방지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업무 역량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산불감시원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이달 1일부터 산불 취약지에 분산 배치해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예방과 단속을 실시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의 입산금지 등 산불예방 활동을 펼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주로 산불진화와 인화물질 제거, 농산폐기물 파쇄 지원 등 산불예방업무에 투입되며 신속한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자체 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박종태 부군수는 "산불방지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본인 안전과 함께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산불 감시와 진화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성주 용암면 산불 수비대, 산불예방 '한뜻'

산불 대응 체제 본격 가동

성주군 용암면은 지난 14일 용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의용소방대, 각 마을 이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가을철 산불감시원·산불전무예방진화대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개최해 산불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발대식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어 산불방지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해 실무 역량과 안전의식을 강화했다.

산불감시원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이달 11일부터 산불 취약지에 분산 배치돼 산림 인접지의 불법 소각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한편 인화 물질 소지자의 입산 금지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주로 산불 진화와 인화 물질 제거, 농산 폐기물 파쇄 지원 등 산불 예방 업무에 투입되며 신속한 초기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 진화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주민호 면장은 "산불방지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본인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산불 감시와 진화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상주시가족센터, 우리동네 아빠교실 '성료'

상주시가족센터에서는 0~9세의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우리동네 아빠교실'을 개최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우리동네 아빠교실'은 총 3개의 테마로 운영했다. 첫 번째 테마로 '찾아가는 아빠교실'은 지역 내 어린이집 등의 14개 유관 기관으로 찾아가 '책놀이' 3회, '몸놀이' 10회를 진행했다.

두 번째 테마는 '찾아오는 아빠교실'로 상주시가족센터 내 교육장에서 '아빠랑 호기심 과학놀이'를 총 4회기 진행했으며 마지막 테마로 '아빠랑 별 보러 갈래?'를 1박 2일 캠프로 진행했다.

특히 '아빠랑 별 보러 갈래?' 1박 2일 캠핑은 높은 인기를 보여 약 5대 1의 경쟁을 뚫고 총 20가정이 참여했으며 부모교육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보물찾기 및 요리 대회 등의 시간을 통해 온 가족이 즐기며 화합하는 시간이 됐다.

'우리동네 아빠교실'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교육도 유익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유대감이 좋아졌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유대감을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올바른 양육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포항, 겨울철 산불 ZERO 위해 '한마음 한뜻'

각계 1천명 참석, 결의대회 성료
경각심 고취·산불방지 의기 투합
유공자 표창패 수여·교육도 진행

포항시 지난 15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포항야구장 뒤편 잔디광장에서 '산불예방 발대식·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불감시원 283명,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52명, 소방서, 의용소방대, 시민단체 등 1000여명이 참여해 산불의 경각심 고취와 산불방지 결의를 다지고 본격적인 산불 대응 비상 체제 돌입을 알렸다.

특히 산불 발생 시 가장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의용소방대, 이통장협의회 등도 함께 참여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산불 진화 기계화시스템 시범, 산불방지대책 발표, 산불유공자 표창패 수여, 산불방지 결의문 낭독과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 예방 시민 안전과 산불감시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더불어 포항시는 겨울철 눈이 잘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특징인데 넓은 면적의 소나무림 분포와 봄철 동해안 강풍으로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우려가 높다.

이에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52명을 7개 조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가을철부터는 송라면 일원에 1개 조를 추가 배치해 산불 진화 초동 대응력을 강화했다.

지난 15일부터는 산불감시원 283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감시와 계도 활동을 펼치면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망형 산불감시 카메라 10개소에 딥러닝 영상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연기 및 화재를 탐지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AI 기반 산불 조기 감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위반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발생 원인별로 체계적인 선제 대응을 실시한다.

또한 '소각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대시민 산불 예방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주시, 영덕군 등 인근 지자체와 소방서, 해군항공사령부, 해병사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진화 헬기, 인력 등 진화자원 활용과 신속한 공조로 산불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건조한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포항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산불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청도군,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 '최선'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내달 9일까지 지역농협서 접수 받아

청도군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고품질 과실의 안전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지원을 위한 '2025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을 오는 12월 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 품목은 복숭아, 떫은감, 사과, 자두, 포도 등 과수 품목으로 지난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으로 과원 면적이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다. 재해 예방시설의 경우 2012년 이후 조성된 과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농협에 출하 실적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후변화 대응으로 비가림시설, 미세살수장치, 관수관비시설(점적관수) 등 사업이 추가됐다.

지원내용은 지주시설(우산형, 개별식, Y자형, 유인대), 관수관비시설(스프링클러, 점적관수), 관정, 품종갱신(복숭아, 사과, 포도, 자두), 방풍망, 배수시설(유공관), 야생동물방지시설(전기울타리, 철책울타리, 방조망), 비가림시설(복숭아, 포도), 서리우박방지시설(미세살수장치) 등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청도군은 올해 200여농가에 총사업비 10억9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하수 군수는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번 2025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의 안전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신기술 도입과 재해예방시설 지원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영천시, 아이들과 함께하는 워킹맘·대디 맞춤형 교육 '인기'

포도쿠킹 클래스 등 체험 활동 운영
직원 후생복지·저출생 극복 노력

영천시는 시청 직원들이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하반기 워킹맘·대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세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100여명의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주말에 진행될 예정으로 지역 내 특색있는 시설과 연계해 전통장 만들기, 포도쿠킹 클래스, 드론 스포츠, 캠핑, 보현산 짚와이어 등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매일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 영천에는 재밌는 놀이가 많다"며 즐거워했다.

직원들 역시 "사무실을 벗어나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가을을 한껏 즐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기문 시장은 "앞으로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지역의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직원들이 직접 체험한 영천의 놀거리를 널리 홍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울릉, 나리분지·알봉둘레길 자연정화 '훈훈'

군청 직원·가족 400명 '힘 보태'

울릉군은 지난 13일 나리분지 및 알봉둘레길 일대에서 깨끗한 울릉을 만들기 위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군청 직원 및 가족 400여명이 참가해 가을 단풍철을 맞아 방문객이 많이 찾는 나리분지 등산로에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와 폐비닐, 캔 등 최근 강풍과 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자연정화 활동은 울릉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시행되고 있는 플로깅 캠페인에 군청 직원들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실시됐다.

정화구역은 나리분지 너와집에서 출발해 신령수길을 청소하는 코스와 용출수길을 청소하는 코스로 나눠 3시간 가량 실시했다.

이날 정화활동과 더불어 부서별로 사무실에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깊어 가는 울릉의 가을을 느끼기 위해 기념촬영을 하는 등 직원들 간에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남한권 군수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천하는 청정울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먼저 인사하는 울진 죽변면 만들기 '솔선'

울진군 죽변면은 지난 14일 먼저 인사하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죽변면 이장협의회 회원 및 면사무소 직원 30여명이 '먼저 인사하기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울진군의 '2025 먼저 인사하기 총력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매주 '인사합시데이(day)'를 운영하고 매달 '먼저 인사하기 실천 캠페인'을 추진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주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면사무소 직원들과 이장협의회 회원들은 죽변면 시내를 돌며 밝은 얼굴로 주민에게 먼저 인사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여는데 기여했다.

죽변면은 매달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솔선수범하는 '먼저 인사하기 실천 캠페인'을 꾸준하게 개최해 밝은 죽변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태직 면장은 "먼저 인사하는 문화를 전파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군민 모두 행복한 울진'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경산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사업 확인하세요~

道 주거복지 시스템으로 신청

경북도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39세(2024년 신청 기준)인 자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 방법은 경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금장대(중식당)
대표 이 재 희
경북 경주시 현곡면 동대로 224
☎ 054-771-9900

대구경북교육신문
대표 백 재 욱
경주시 초당길 5번길 3 (동천동, 2층)
☎ 010-7755-2933

㈜세영클린텍
대표 양 창 권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90
☎ 010-3539-9395

노력으로 갈고닦은 끼와 재능의 무대

경주 천북면 주민자치위, 발표회서 다채로운 주민 주도 공연

경주시 천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5일 천북커뮤니티센터 2층 강당에서 300여명의 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천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각 마을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은 우쿨렐레, 라인댄스, 고고장구, 드럼, 노래자랑 등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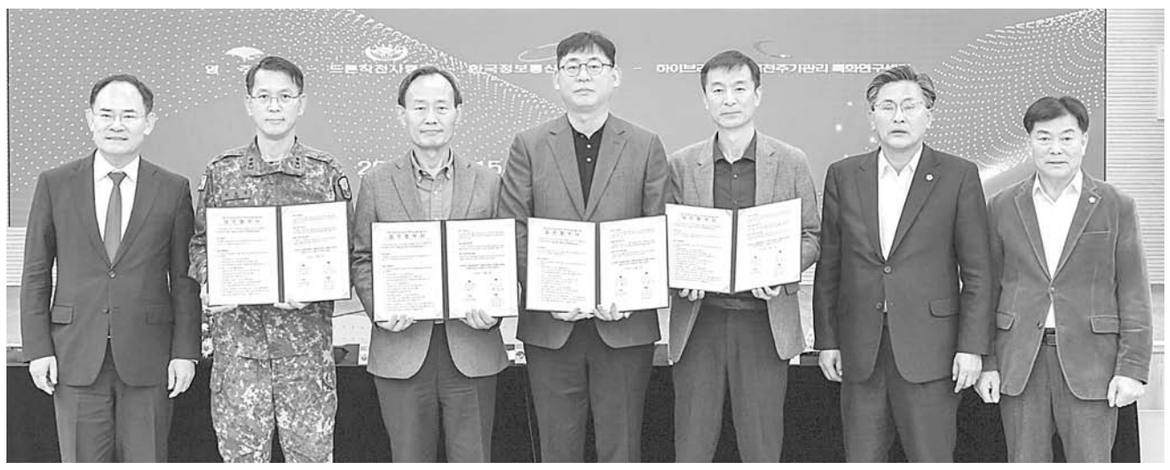
각 마을 대표팀들은 끼와 재능을 뽐냈고 관람객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한데 어우러져 모처럼 만에 활력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최만규 위원장은 "이번 발표회가 면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을 나누고 더불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주민자치위원들과 협력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영주시, 방산·민간 드론산업 중심지로 '성큼'

드론작전사령부 등과 업무협약
기업유치·체계 구축 다각적 협력
제조부터 폐기까지 원스톱으로



영주시는 지난 15일 드론작전사령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하이브리드 파워팩 전주기 관리 특화연구센터와 '드론산업 육성 및 대(對)드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대(對)드론 실증사업 훈련장 및 종합평가체계 활용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드론·대(對)드론 종합평가센터 및 시험인증 체계 구축 △드론특화 에너지자립 실증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창설된 대한민국 국군의 드론 및 무인기 작전 전담 부대이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국내 유일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 및 시험인증 전문기관이다. 또한 하이브리드 파워팩 전주기 관리 특화연구센터는 방위사업청의 지원으로 무인체계 전기(電氣)추진 시스템 국산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영주비상활주로를 방산 및 민간 드론산업에 활용하고 지역에 드론 제조부터 평가, 정비, 폐기까지 아우르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난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신청을 시작으로 드론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의 가교역할을 한 임종득 국회의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주비상활주로가 드론 시험 및 기업 유치의 전략적 장소로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서 시장은 "이번 협약이 영주를 방산뿐 아니라 민간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드론 제조와 평가, 정비, 폐기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드론 산업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봉화군, 부천시와 상호 우의 '더 돈독하게'

공무원 축구동호회 교류 열려

지난 14일, 15일 이틀간 부천시에서 열린 '2024 부천시-봉화군 공무원 축구동호회 친선교류'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두 도시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상생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봉화군 부군수를 포함한 대표단과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부천시 공무원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류는 지난달 15일 부천시 방문단의 봉화군 방문과 연계된 행사로 당시 두 도시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자매결연 경과와 향후 교류 계획을 논의하고 봉화군의 우수 정책 현장을 탐방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최된 축구동호회 친선교류는 스포츠를 매개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넓히는 시간이었다.

이날 부천시 부시장의 환영사와 배진태 봉화군 부군수의 답사로 시작한 행사는 친선 축구경기와 부천시 부시장이 주재한 환영 만찬으로 이어졌다.

두 도시 동호회는 기념품을 교환하며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다졌고 대표단은 만찬 자리에서 상호 우의를 돈독히 했다.

배진태 부군수는 "앞으로도 부천시와 봉화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올 겨울엔 동해로 떠나자… '경북 숙박 페스타' 혜택 팡팡

경북문화관광공, 여기어때와 협업
동부권 5곳 숙소 전용 3만원 쿠폰
온천·이색요리 등 즐길 거리 풍성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와 손잡고 숙소 전용 최대 3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경북 동해안 숙박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겨울 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매력을 지닌 동해안의 겨울 바다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여기어때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경북 동해안 5개 지역 숙소 전용 최대 3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지급되며 선착순 사용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쿠폰 사용 가능 체크인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다.

쿠폰 적용 지역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다. 쿠폰 사용은 '경북 동해안' 배지가 있는 상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경주시의 경우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여기어때는 추가 혜택으로 결제사별 최대 10% 할인을 제공한다. 자세한 혜택은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일 사장은 "경북 동해안 숙박 페스타'는 겨울바다 물멍, 해양 액티비티, 온천, 신선한 해산물 요리 등 경북 동해안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올 겨울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경북 동해안이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오대원 제15대 노인회 영양군지회장 당선

지난 14일 열린 제15대 대한노인회 경북 영양군지회장 선거에서 오대원 후보가 당선됐다.

오는 12월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오 당선자는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을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포부를 전하며 경로당 활동비 인상 및 노인 정책의 현실적 문제 개선을 약속했다.

1951년생인 그는 영양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봉사단 영양군단장, 영양라이온스클럽 회장, 영양군립요양원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다.

오 당선자는 "영양군지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정책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과 노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상주, 주민 전기기능사 자격과정 수료식

총 11명, 국가자격증 도전 계획

상주시는 지난 13일 상산전자고등학교에서 관계자 및 수강생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전기기능사 자격(실기)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전기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실습을 포함한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 준비를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번 과정에서 총 11명이 수료했으며 이들은 올해와 내년에 시행되는 전기기능사 국가자격증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고용 효과 증대와 지역 사회 발전이 기대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함종환 교장은 "지역주민들과 교감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학교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호성 평생학습원장도 "이번 교육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상주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상생공존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문경시, 바른 자세 교육 '큰 인기'

점촌북초 대상 건강배움터 운영

문경시 보건소는 지난 15일 점촌북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꿈이 자라나는 초등 한의약 건강배움터'를 운영했다.

어려서부터 모바일 문화와 디지털 매체를 경험하며 자라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빈번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과몰입과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바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고 건강한 신체·정신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진행한 △거북목 예방 교육 △바른 자세 교정을 위한 생활 습관 및 스트레칭 방법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어린이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관리 소식지 △동의보감 경혈 지압 방법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진행한 한의약 건강교실은 신체 구조와 근골격계질환, 바른 자세와 교정 운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가스공, 국민·고객 체감 혁신기술 널리

KOGAS BIC 2024 경진대회 개최
고압가스배관 자동 용접 '최우수'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7일 대구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인 'KOGAS BIC(Best Innovation Contest)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OGAS BIC 2024는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혁신 활동 중에서 비용 절감, 국민 편익 향상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혁신사례를 대내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 가스공사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대국민 서비스 강화 △적극행정 확대 등 3개 분야에서 국민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 총 83건을 발굴하고 이 중에서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주요 우수 사례로는 가스 공급시설 핵심설비인 정압기 국산화 성공, 친환경 천연가스 소각설비 구축, 천연가스 세제 감면 아이디어 제안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기여,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 및 국민 편익증대 달성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건설설계처 기계설계부가 발표한 '고압가스배관 건설현장 자동 용접 기술 개발'이 선정됐다.

공사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배관 용접 공사의 신속·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원, 민간기업과의 협업으로 고압가스배관 자동 용접 기술을 개발했다. 자동 용접 기술을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면 안전성과 품질은 향상되고 공사비와 공기는 줄어들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혁신 챌린지' 부문을 신설해 최근 5년 동안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를 확대 적용한 사례도 포상함으로써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포항,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부상'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서
이강덕 시장, 국제회의 유치 총력
마이스산업 역량 강조·협조 요청
2025 WGGF(가칭) 앰배서더 제안

포항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이자 글로벌 마이스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국제회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가 중인 이강덕 시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국제회의 포항 유치를 위한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만나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포항의 마이스산업 역량을 강조하며 국제회의 포항 유치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신임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확장 등 포항의 국제회의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며 2025년 포항에서 개최될 WGGF(가칭, 세계녹색성장포럼)의 앰배서더를 제안했다.

이날 저녁 이강덕 시장은 이은용 주아제르바이잔 대사 및 한국-아제르바이잔 문화교류협회(SEBA)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국-아제르바이잔 문화교류협회(SEBA)는 지난 2004년 설립돼 한국-아제르바이잔 양국 간의 문화행사, 세미나, 학술교류 및 경제협력 프로젝트 등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포항과 아제르바이잔 바쿠는 항구도시, 산업의 중심지, 산업 발달로 인한 환경문제 등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어 이 시장은 포항과 바쿠 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강덕 시장은 유엔 글로벌혁신허브(UGIH) 파빌리온에서 열린 UGIH 세션에 참석해 도시의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UGIH가 계획 중인 도시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 간 협력'을 주제로 패널 토론에 참여해 포항시의 탄소중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도시 간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혁신 방안 도출을 위해 앞으로도 네트워크 구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제회의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 글로벌 마이스 허브 도시 포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지혈용품 '헤모블럭' 美 FDA 인증 획득

케이메디허브, 전임상 실험 지원
신속 대응으로 510(k) 승인 일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인코아(대표 김동탁)의 '헤모블럭 에스'가 미국식품의약국(FDA) 3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코아은 지난 2014년 설립돼 국내 대학 및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의료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번 FDA 인증을 받은 비흡수성 체내 거즈형 지혈용품 '헤모블럭 에스(Hemoblock_S)'는 체내 조직 출혈 시 지혈 및 삼출물 흡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양전하를 띤 키토산이 함유돼 있어 적혈구 및 혈소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혈액 응고를 유도하는 원리다.

케이메디허브는 FDA 인증 과정에서 돼지 지혈능 실험 등 전임상 실험을 지원했고 FDA의 보완 요청에도 신속히 대응해 510(k) 심사 및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특히 보완 자료 준비와 전임상 프로토콜 설계 등에서 케이메디허브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의료기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한수원-천문硏, 국제천문대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 '맞손'

화석연료→재생에너지 전환 공급
두 기관 관련 사항 긴밀 공조 약속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지난 15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국제천문대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천문대 에너지 전환 사업'은 천문관측에 활용하는 설비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기존 화석연료(가스, 디젤 등)에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전환, 독립전력망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은 칠레 등 세계 각 지역에서 해외 기관들과 함께 천문관측을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천문대 에너지 전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정보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득 원장은 "한수원의 국제천문대 에너지 공급 지원을 바탕으로 천문대 운영의 에너지 자립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과학적 연구를 넘어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대응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주호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천문대 에너지 전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탄소중립 달성 및 관련된 기자재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봉화군,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확대 운영

국민·신한은행 추가로 폭 넓혀

봉화군은 이달부터 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군은 세외수입 납부 접근성을 높이고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기존 NH농협은행에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은행을 추가해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은행 선택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 등 납부를 위해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인터넷뱅킹, CD/ATM,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고지서상에 부여된 은행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박덕명 재정과장은 "세외수입 가상계좌 확대로 은행 간 이체로 인한 송금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발굴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고령 아이코리아, 아동 방한복 기부

아이코리아 고령군지회는 15일 지역 내 초등학생 9명에게 사랑의 방한복(200만원 상당)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사랑의 방한복은 아이코리아 고령군지회에서 지난달 19일에 진행한 녹색환경 실천 자원사랑 아나바다행사로 마련한 수익금으로 준비했으며 지역 내초등학교에서 추천받은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이코리아 단체회원들은 아이들을 위해 패딩을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포장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격려하고 이웃의 따스함을 전했다.

이유정 군지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행복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봉화,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봉화군은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재해구호 분야 종사자(공무원 및 민간인) 60여명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재해구호 기본과정과 한명아 재난구호 강사의 교육 커리큘럼을 토대로 7시간 과정의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국가 재난 관리체계 이해, 재난유형과 구호활동 체계,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등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뒀다.

박현국 군수는 "앞으로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며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시 신속한 구호 활동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환실협, 미래 세대에 '환경사랑 인식' 쑥쑥

청소년 환경사랑 그림공모 성료
경주女정보고 임예주 '종합대상'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1학년 임예주 학생이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가 주최한 '제20회 전국 청소년 환경사랑 그림공모전'에서 종합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지난 16일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20회 전국 청소년 환경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1820여 학생들의 그림이 출품됐다. 이날 대상인 △경북도지사상은 예일여고와 유가중, 대구용청초, 용황초, 메트로자연유치원생이 받았으며 △경북교육감상은 경주여고, 근화여중, 황남초, 황남초, 뜰안애 어린이집 어린이 등 56명의 학생들이 수상했다.

김헌규 총재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탄소를 절감을 위한 실천행동에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으로 지구자원 보호와 온난화를 줄이는 건강한 생활, 환경운동을 학생 여러분과 함께하자"며 참석자들에게 환경보호를 강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재 요람 '우뚝'

밝은빛누리장애인대학 수료식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4일 경주시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에서 제14기 밝은빛누리장애인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명예학장인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과 김기호 시민복지국장, 김헌덕 시장애인단체협의회장 및 수료생 61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학생시상, 개근상·수료증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범적으로 수료한 교육생에게 수여되는 경주시장상은 이미정 교육생이 수상했으며 명예학장상(경주시의회의장상)은 강정미 교육생이 수상했다.

밝은빛누리장애인대학은 지난 3월 28일 개강해 8개월간 30회기에 걸쳐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여름견학, 야외수업, 졸업여행 등 총 30회에 걸쳐 73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이날 6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동협 의장은 "제14기 밝은빛누리장애인대학 수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당사자분들의 자립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상주 북장사, 이웃 위한 부처님의 자비 실천

상주시 북장사(내서면 북장리 소재)는 지난 14일 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연탄 5000장(약 4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주지 효담스님과 미타회 회원 및 개금불사 사경반 신도 등이 참여했다.

주지 효담스님은 "상주시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데 연탄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강영석 시장은 "북장사의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영주영남신협, 따뜻한 겨울 만들 이불 '선물'

영주영남신용협동조합은 지난 14일 휴천2동행정복지센터에서 겨울나기 이불 20채(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신협의 '온(溫)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전상욱 이사장은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신협은 서민과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신협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해마다 이웃돕기 성금기탁, 생활용품 지원 등 다양한 복지활동을 실천하고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동 정

CGV 북포항 교육(공)감톡(TALK)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8일 오후 3시 40분 포항에 있는 CGV 북포항 제2회 교육(공)감톡(TALK)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신녕면 주민자치교양강좌 작품전

최기문 영천시장은 18일 오후 2시 신녕면 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신녕면 주민자치교양강좌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에 참석한다.

청송사과 수출홍보영상 중간보고회

윤경희 청송군수는 18일 오후 3시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개최되는 청송사과 수출홍보영상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한다.

공공비축미곡 수매장 방문

이남철 고령군수는 18일 오전 8시 2024년 공공비축미곡 수매장(고령군 성산면 기산창고)을 방문해 관계자와 농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상운면 열린군수실·이장회의 참석

박현국 봉화군수는 18일 오후 2시 상운면사무소에서 개최되는 상운면 찾아가는 열린군수실 및 이장회의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다.

선남면 이장협, 산불 예방 캠페인

성주군 선남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새로 준공된 반다비 체육공원 1층 다목적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개최해 산불 발생 제로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폐기물 소각과 산림 내 흡연, 화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홍보, 이장협의회는 주요 산림 주변을 순찰하며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 수칙과 긴급 상황 시 신고 요령을 안내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된 반다비 체육공원에서 진행된 산불 예방 캠페인은 산불 예방 의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2024 하반기 수강생 모집

경주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

운영기간
2024. 8.22(목) - 12.19(목)
매주 목 / 17주
오전반(10~12시), 오후반(19~21시)

수강료
신라문화원 회 원 120,000원
비회원 140,000원
농협 351-1136-1107-13 (신라문화원)

강의장소
오전반 : 서악문화공간 (경주시 서악3길 14)
오후반 : 신라문화원 교육관
(경주시 금성로 254, 축협 2층)

문의접수
신라문화원 054-777-1950 www.silla.or.kr

주관 사단법인 신라문화원
후원 한국수력원자력㈜ (주)월성원자력본부

No.	날짜	주제	강사
1	8월 22일(목)	신라의 궁궐(월성)	김호상 이사장 · 역사고고학연구자 · (재)형산문화재연구원 원장 · (재)진흥문화재연구원 이사장
2	8월 29일(목)	신라의 강(문천)	
3	9월 05일(목)	신라의 산(낭산)	
4	9월 12일(목)	신라의 무덤(왕릉)	
5	9월 19일(목)	조탑경과 불탑	신용철 관장 · 양산시립박물관 관장 · 울산박물관 운영위원 · 통도사 본말사 문화재위원
6	9월 26일(목)	비보사탑설과 불탑	
7	10월 10일(목)	밀교와 불탑	
8	10월 17일(목)	계단(戒壇)의 구조와 상징	
9	10월 24일(목)	불국사 1	차윤정 실장 · 불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월성기초학술연구 TF
10	10월 31일(목)	불국사 2	
11	11월 07일(목)	석굴암 1	
12	11월 14일(목)	석굴암 2	
13	11월 21일(목)	전황복사와 <황복사지삼층석탑금동사리함>	박광연 교수 · 동국대학교 WISE 국사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소장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
14	11월 28일(목)	백률사와 <이차돈순교비>	
15	12월 05일(목)	무장사와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	
16	12월 12일(목)	숭복사와 <숭복사비>	
17	12월 19일(목)	특별강연 : 화랑과 통일	김규호 교수 · 전, 경주대학교 대학원 원장 문화관광산업학과 교수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경, 미용아카데미 성공적 마무리

문경시는 대한미용사중앙회 문경시지부 주관으로 운영된 친절 미용아카데미가 15일 종강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친절 미용 아카데미는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해 올해에는 횟수를 늘려 4회 운영됐으며 매 회차마다 20명 내외의 문경시 미용인들을 대상으로 미용 관련 전국의 우수 강사를 초빙해 진행하였다.

이번 아카데미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용 산업에 대응하고자 이론과 실습을 통해 최신 트렌드와 선진 미용 기술을 교육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 서비스 교육도 심도있게 진행됐다.

정태랑 지부장은 "이번 기회로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전과 학습을 통해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미용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성주 용암면, 11월 정기 이장회의

성주군 용암면은 지난 15일 용암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6개 리 마을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기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 △2024년 성주군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무인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 무료 안내 및 홍보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홍보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일정 안내 △가을철 산불방지 예방 홍보 협조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 시행 안내 등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호 면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을철 산불 발생이 우려된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연접 지역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 산불 예방 활동에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한수원, 전 세계에 '韓 원전 위상' 높였다

스리랑카 국제품질분임조 대회 참가팀 금상… 12회 연속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품질분임조 2개 팀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2024 국제품질분임조 경진대회(ICQCC)'에 참가해 참가팀 모두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한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12회 연속 금상을 수상하며 한국 원전의 품질과 안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렸다.

지난 1976년 시작해 올해 49회를 맞는 국제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전 세계의 분임조들이 참가해 우수한 품질 개선 성과를 선보이고 경쟁하는 국제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13개국의 900개 분임조가 참가했으며 한국 대표로는 한수원을 비롯한 14개 기관에서 24개 분임조가 출전했다.

한수원은 한울본부 대외협력처와 고리본부 고리1발전소가 참가해 △환경방사선감시설비 유지보수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시간 단축 △제어봉 설비개선으로 정비시간 단축 및 예산 절감이라는 분임조 활동결과로 발전소 품질 및 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황주호 사장은 "12회 연속 금상 수상은 한수원의 품질과 안전관리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품질혁신을 통해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한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이안면 적십자봉사회 "이웃에 도움 되길"

성금 100만원 기탁,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귀감

상주시 이안면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3일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지역 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안면 적십자봉사회는 평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특히 동절기를 맞아 힘든 시기를 겪고 힘는 취약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규 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성금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점근 면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적십자봉사회의 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탁된 성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돼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청도여성대학총동창회, 사랑의 밑반찬 '훈훈'

청도군여성대학총동창회는 지난 14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는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밑반찬을 지역내 소외된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따뜻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자 기획됐다.

이른 아침부터 회원들이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해 김치, 미역국, 떡국, 귤 등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밑반찬을 준비했다.

손석남 회장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요즘 이웃을 위해 기꺼이 두 손 걷어붙이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봉화 새마을회·새마을금고, 행복 마을 만들기

봉화군새마을회와 봉화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한 봉화 만들기 봉사활동에 동참키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최기영 회장, 최동주 협의회장, 금순남 부녀회장, 김만수 직공회장, 정성훈 문고회장 및 이태봉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지역사회 복지향상 및 사랑의 반찬봉사 협력 등의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

최기영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의성 장애인복지종사자 '화합의 장'

의성군은 지난 12일 의성군 장애인복지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화합을 다진 특별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의성군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장애인단체 및 시설 종사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장애인을 위한 복지업무로 수고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배드민턴, 제기차기, 신발 멀리 던지기 등 종목에서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협력과 단결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복지 분야의 종사자들이 건강과 협력을 다지며 더욱 활기찬 복지 현장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영천 임고서원, 청렴 워크숍 성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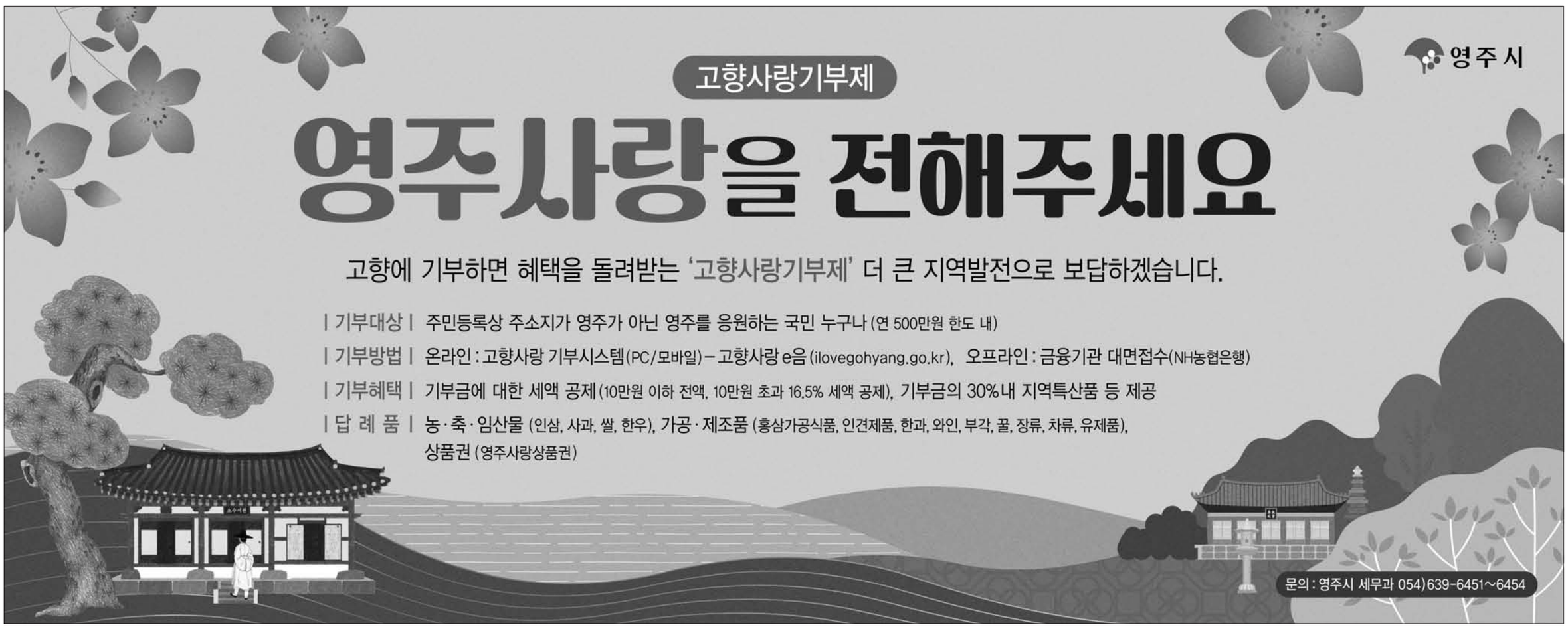
영천시 소재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에서는 지난 15일 대구시 남구 소속 직원 40명이 참가해 올바른 공직자 정신 확립을 위한 청렴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원준 영남대 교양학부 교수의 '공직자의 윤리관과 경제관'을 주제로 한 청렴교육 특강과 함께 서원투어 및 다도예절 체험 등 체험 과정이 마련됐다.

교육에 참가한 박지현 주무관은 "영천의 문화유적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담고 있는 임고서원의 경치를 감상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동재 수련원장은 "워크숍에 참여한 대구시 남구 공무원들의 투철한 국가관과 나라 사랑의 사명감에 박수를 보낸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대구간송미술관, 시작부터 초대박… 알찬 체험·할인 혜택까지 팡팡

다음달 1일 첫 개관전시 마무리
8일 기준 누적 관람객 15만 돌파
씨네21과 협업 영화 관람 행사
21일 윤동주 주제 토크쇼 진행
지역 유관기관과 다양한 제휴 등
교통·전시관 교차할인까지 풍성

전시 개관 이후 선풍적인 관심을 받으며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대구간송미술관'이 오는 12월 1일 첫 전시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개관 전시 '여세동보-세상 함께 보배 삼아'는 국보·보물이 대규모로 출품되었으며 지난 8일 누적 관람객 15만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

▲계속되는 다채로운 문화·교육 프로그램

대구간송미술관은 전시 종료를 앞두고 미술관 개관 및 '여세동보-세상 함께 보배 삼아' 전시에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고자 간송의 문화보국 정신과 소장품을 폭넓게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씨네21과 공동 주최하는 문화프로그램인 '2024 뮤지엄 나이트, 밤의 미술관'을 통해 독립운동가 윤동주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 '동주'를 관람하고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간송 전형필 선생과 윤동주 시인의 삶에 관한 토크 콘서트 및 야간 전시 관람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유아·유치원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간송달쏭' 프로그램을 통해 간송 전형필과 보화각, 간송미술관에 관한 교육을 주 3회(수~금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사전 접수 필요)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개관 이후 꾸준히 진행되며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보이는 수리복원실' 운영(화~금요일 오후2시~4시), 전시 전문 해설사의 '사전 전시해설'(1일 4회),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마지막까지 선사할 예정이다.

▲다양한 할인 혜택 및 교통편의 제공

대구간송미술관은 유관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전시기간 중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대구미술관 입장권 지참 시 입장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3개 전시(대구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대상으로 교차할인(입장권 지참 시 20%)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KTX 연계 여행상품 운용(KTX 최대 40% 할인),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 운영(미술관 입장권 20% 할인), DRT(수요 응답형 버스), 수성투어버스 운영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교통편의 제공 역시 전시 종료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전인건 관장은 "지난 9월 개관 이후 대구간송미술관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응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다음달 1일 전시 종료까지 간송의 문화보국을 경험하고 교육과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여세동보-세상 함께 보배 삼아'는 오는 12월 1일 전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전시는 대구간송미술관 개관기념 국보·보물전으로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국보·보물 40건 97점 등을 선보였으며 중·남부권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고미술 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으며 화제의 전시로 주목받고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거대한 도시 속 걷기 통한 삶의 회고
구미 배태열 작가 개인전 '보우하사'

구미청년상상마루 성과…24일까지

구미청년상상마루 배태열 작가의 '보우하사' 개인전이 오는 24일까지 페트리코에서 개최된다.

배태열 작가는 구미청년상상마루 제1기로 활동하고 있으며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한낱 개인으로서 자신의 존재와 그 주변을 둘러싼 관계 맺기에 주목한다.

그는 평소에 '걷기' 또는 '산책'으로 일컬어지는 행위를 통해서 마주하는 다양한 도시의 파편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이 살아 있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결과물로 남은 궤적과 기록을 바탕으로 드로잉, 조각, 영상 등 시각화된 작품을 통해 도시를 읽어낸다.

그는 도시를 걸으며 떠올린 누군가의 안녕을 위한 작가 자신의 염원을 시각화해 선보인다. '도시 걷기'를 통해서 심신을 다스리는 수행을 실천하고 한 걸음씩 내딛은 지도 위의 흔적들을 3차원의 공간으로 이동시켜 조각상으로 구현한다. 도시를 걸어온 궤적은 마치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장승이나 석상과 유사한 형상으로 표현된다.

배태열 작가는 "누군가를 향한 염원이 담긴 지난날의 '걷기'들이 오히려 나를 돌보고 나의 안위를 걱정 해주는 조각상이 됐다"라며 "작품 세계를 넓히는 계기가 된 이번 전시 '보우하사'는 나의 존재와 주변을 둘러보게 했다. 서로 보호하고 도와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구미청년상상마루 배태열 작가의 개인전 '보우하사'는 (재)구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공개모집에 선정돼 개최된 것으로 구미문화재단은 올해 문화, 시각, 공예 분야에서 예술인 및 단체의 28개 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전통 국악기 기증 모집 '첫 결실'

고령 공예 명장 악기장 김동환
국악기跡 통해 가야금 2대 기부
전통 방식 제작·음악 문화 널리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전통 국악기 기증 모집'이 첫 결실을 맺었다.

재단은 지난 13일 2014년 공예 명장으로 선정된 김동환 악기장(고령군)이 우륵 국악기연구원을 통해 가야금 2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동환 명장은 30여년간 전통 악기 제작에 헌신해 온 장인이다. 지난 2014년 고령군 명장으로 선정된 그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지역명사 및 이탈리아 크레모나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디 학교에서 가야금 제작 기법을 소개하는 등 국내외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가야금은 한국 전통 제작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전통 음악 문화를 알리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비세상을 방문하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한국 전통 음악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재단은 오는 29일까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전통 국악기 기증을 받고 있으며 기증된 악기들은 선비세상 한음악당에 전시돼 방문객들에게 우리 전통 음악 문화를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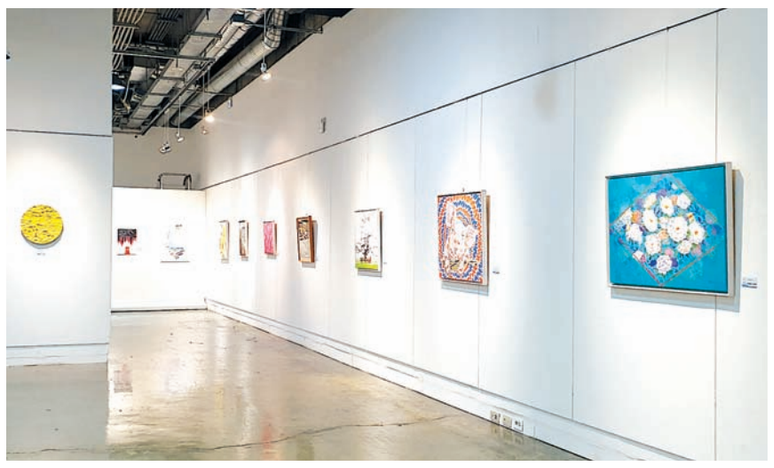
기증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재단 마케팅팀(054-630-97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공예 명장의 귀중한 기증을 시작으로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인 국악기 보존과 계승에 더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기증받은 국악기들이 선비세상 한음악당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출향·전입·향토 미술작가 한자리… '러브청도' 展

23일까지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지역 출신 작가 70명 70作 선봬
아티스트 토크 등 부대행사 다채



청도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가 주관하는 '제16회 러브청도전'이 이달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러브청도전'은 지난 2008년에 처음 시작돼 청도 출신의 출향·전입·향토 미술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청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이번 전시에는 박대성, 박해동, 최학노 등 지역 출신 작가 70명이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서예, 디자인 등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박대성, 이종승, 공성환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제16회 청도러브전' 개최를 통해 청도 미술인들의 예술혼이 담긴 주옥같은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도군의 3대 정책 비전 중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예술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 칼 럼

가장자리부터 위축? 주택시장 '계란 프라이 이론'

박원갑
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

프라이팬이 달궈질 때는 노른자위나 흰자위나 모두 뜨겁다. 그러나 프라이팬이 식으면 흰자위부터 서서히 차가워지고 노른자위는 한참 동안 온기가 지속된다. 불황이 깊어지면 도심(노른자위)보다는 외곽이나 교외(흰자위)가 더 빨리 더 오랫동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저수지 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가뭄이 들어 저수지의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가장자리의 물이 먼저 줄어들고 중심은 마지막에 가서야 없어진다. 이들 이론은 모두 도심과 외곽, 인기 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차별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논리적 틀이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여파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맞벌이 수요층이 두꺼운 도심이나 인근 고가주택 밀집 지역은 오름세를 보이지만 외곽지역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0.18%), 서초·성동구(0.14%), 용산구(0.11%) 등은 서울 평균(0.07%)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강북, 도봉, 구로구 등은 0.02%로 강보합세에 머물렀다. 수도권에선 벌써 내림세로 접어든 곳이 적지 않다. 조사대상 지역별로는 인천 남동구의 하락 폭(-0.1%)이 가장 깊었다. 동두천, 의정부, 이천, 오산, 평택, 용인 처인구 등도 내림세를 보였다. 이러고 보니 요즘 주택시장 흐름에 '계란 프라이 이론', '저수지 이론'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지난 2013~2021년 대세 상승기에 동조화 현상이 강했지만 요즘은 딴판이다. 주택시장을 둘러싼 금융시장 환경, 핵심 수요층과 구매 방식이 그 당시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시장 주도세력은 20·30세대보다 30·40대, 특히 40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의 40대 거래 비중은 26.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은 지난 7월부터 40대가 30대를 앞질렀다. 40대는 집을 처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외곽지역에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다. 전세가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53.9%로 역대평균(55.1%)보다 낮다. 갭투자보다 '거주 목적의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보니 도심이나 그 인접지역 신축 또는 준신축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과거처럼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주택시장으로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의통화(M2)와 협의통화(M1)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1%, 2.8% 정도 늘었다. 시중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니 주택시장에 유동성이 크게 유입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자금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기보다는 특정 인기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는 고가 아파트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층이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크게 없었다. 그만큼 시장 체력이 강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내년 주택시장도 녹록지 않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가 상승 에너지가 세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수도권 집값은 1% 오르겠지만 지방은 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 따로 움직이는 차별화 양상이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이 불황기나 조정기로 접어들면 도심보다 외곽이 먼저 움츠러든다.

이를 빗대 등장한 논리가 '계란 프라이 이론'이다. 뉴스1

■ 독 자 기 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진정한 지방시대 견인해야!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지난달 21일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키 위한 본격적인 첫 단추를 끼웠다.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

구미상공회의소에서는 그동안 누차 강조하며 청년이 모이고 기업투자가 끊이지 않는 메가시티 실현을 꿈꿔왔다.

지방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상속세는 물론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깎아달라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한 바 있으며 그렇지 않고는 지방이 살아나기 힘들다고 주장해 왔다.

경북상공회의소는 물론 경남·전북·전남상공회의소 등 비수도권상공회의소에서 공통적으로 절실히 요청하고 있으며 내년도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동을 거는 것은 참으로 반길만한 일이다.

우리 대구·경북은 영토면에서나 핵심기반시설면에서나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한 섬유와 전자, 철강 등 핵심 산업면에서도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각자도생식의 힘이 분산되는 정책으로 동력을 잃어가는 동안 수도권은 사람과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다. 수도권이 GTX로 더 촘촘하게 연결되는 동안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한 구미국가산단에는 KTX조차 서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구·경북은 태초에 한 몸으로 시작한 만큼 행정통합으로 힘을 합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지방 실정에 맞도록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특례를 만들어 줘야 한다.

즉 파격적인 개발·투자·재정특례를 통해 풍부한 산업용지 확보는 물론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규제프리존·첨단 신산업 예타 면제, 조세감면, 보조금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첨단산업간 융·복합을 확산하고 산학연계를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TK신공항·달빛철도는 물론 올연말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교통편의성과 기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인데 행정통합으로 이러한 시너지를 극대화 해야 한다.

대구권광역철도가 개통하면 구미-대구 간 출퇴근 편의성 증대를 통해 구미산단 인력난 해소는 물론 금오산·낙동강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대와 푸드페스티벌, 라면축제 등 구미 대표 축제를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의 경제1번지 구미는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필두로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언덕을 오르는 리어카를 밀어줘야 한다.

상공회의소 차원에서도 경북과 경남, 전북과 전남이 힘을 합쳐 지방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어젠다를 공동으로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것이다.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단 10원이라도 득이 된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지자체와 정치권, 정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순조로운 행정통합을 이뤄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 사 설

트럼프발, 내년 2% 성장도 '빨간불'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의 2%대 성장률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2%대 초반 성장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출이 생각보다도 더 부진할 경우 성장률은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대내외 주요 기관의 오는 202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대 초반에 형성돼 있다. 기관별로 보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2.1%,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 2.0%를 각각 제시했다. 대외 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로 전망했다.

가장 최근 전망치를 수정·발표한 KDI는 지난 12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전망치를 2.1%에서 0.1%포인트(p) 하향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반영되면 수출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내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업적을 미뤄 짐작해 볼 때 관세 인상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진 않더라도 정책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 투자를 줄이고 이것이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것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는 향후 우리 경제 성장에 있어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 꼽힌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이런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국의 연간 총수출이 최소 53억달러(약 7조원)에서 최대 448억달러(약 63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발(發) '2차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 압력이 최소 0.46%p에서 최대 1.14%p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아직 해가 바뀌지도 않은 시점이지만 벌써 내년 성장률 전망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잇따른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대표적인 예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 9월 말 기준 2.1%에서 지난달 말 2.0%로 0.1%p 하락했다.

특히 HSBC와 노무라(각 1.9%), 바클레이스, 씨티, JP모건(각 1.8%) 등 5개 사가 2%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내놨다.

우리 경기를 뒷받침하는 건설투자의 부진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건설 규모 자체가 줄면서 올해(-2.3%)에 이어 내년에도 역성장(-2.7%)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특정 시나리오를 상정하긴 어렵다"라면서도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지면 KDI의 성장률 전망치인 2.0%와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 증시 또한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대표 수출주 삼성전자는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추락 중이다. 주식을 판다는 것은 미래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전쟁 후 폐허를 딛고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한 한국에 정작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가 비상이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 가00032
http://www.gyeongsangtoday.com
발행·편집인 이 승 협 편집국장 박 성 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 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 집 부	〈구내〉1004	문 체 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 회 부	〈구내〉1006	정 경 부	〈구내〉1008	F A X	(054)748-3663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